

### 4·9 총선 표밭

#### 지병문·강운태 남구 총선 출정식

○지병문 통합민주당 광주 남구 후보는 27일 오후 광주시 남구 백운광장 인근 국제호텔 앞에서 지지자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출정식을 갖고 거리 유세에 나서는 등 초반 기세를 잡기 위해 총력.

지 후보는 "(민주당의) 통합은 못지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국민의 명령"이라며 "국민들은 지금 이명박 정부의 오만함에 실망하고, 하나만 통합민주당에서 새로운 희망을 찾고 있다"면서 지지를 호소.

○강운태 광주 남구 후보(무소속)가 공식 선거 운동 첫날인 27일 백운광장에서 지지자 등 1천여명이 모인 가운데 출정식을 갖고 필승을 다짐.

광주시 전 정무부시장으로 여성 선대위원장을 맡은 이윤자씨는 이날 연설에서 "강 후보는 남구와 국가발전을 위한 최적임자"라며 "전국최다 득표로 국회로 보내 큰 인물로 키워내자"고 역설했다.

#### 박주선, 출근길 표심잡기 돌입



○박주선 통합민주당 광주 동구 후보는 선거운동 첫날인 27일 새벽 4시, 동구에서 환경미화원을 만난 것을 시작으로 산수공원과 학동 삼거리, 계림동 등지를 찾아 출근길 시민들에게 아침인사



공식선거운동 첫날인 27일 각각 출정식을 갖고 본격적인 유세전에 돌입한 지병문(사진 왼쪽)·강운태 후보.



/니명주기자 mjna@kwangju.co.kr

를 하며 본격적인 표심잡기에 돌입.

박 후보는 "국정수행과 의정활동 경험을 잘 활용해 낙후된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국교에 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유권자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당부.

#### 김영록 매니페스토 실천대회 참석



○김영록 해남·완도·진도 예비후보는 27일 진도 오일시장을 방문해 상인들의 의견을 듣는 것으로 선거운동 첫날을 시작했다.

이날 길거리 유세에 참여하듯 이어 진도 JC가 주최한 매니페스토 실천대회에 참석한 김 후보는 "짧은 선거운동 기간이지만 정책

선거와 바로 뛰는 선거운동으로, 깨끗한 정치를 바라는 선거구민들의 표심을 잡겠다"고 기입.

#### 박지원 '베스트 광주교대인상' 수상



○박지원 목포 후보(무소속)가 27일, 광주교대가 수여하는 'Best 광주교대인상'을 수상.

'Best 광주교대인상'은 개교 70주년을 맞아 광주교대 총동문회가 지난 70년간 학교를 가장 빛낸 각 분야의 동문 8명을 선정한 것으로, 박 후보는 6·15 남북정상회담 성사로 한반도 평화시대 개막에 기여한 공로등을 인정받아 '사회분야' 수상자로 선정.

#### 김영진 연예인과 함께 거리유세



○김영진 통합민주당 광주 서구를 후보는 28일 달린트 임동진씨와 함께 거리 유세를 나서 유권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김 후보는 이날 매일동 농수산물시장, 월드컵경기장, 풍암동 등 주민들 왕래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임씨와 함께 릴레이 유세를 펼치면서 자신을 알릴 예정이다.

/홍행기기자 redplane@/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사진=니명주기자 mjna@kwangju.co.kr

## 박재승, 지원유세 나서나

### 민주 수도권 후보 20여명 벌써부터 지원 요청

#### 지도부 결단에 달려

통합민주당의 개혁공천을 주도했던 박재승 공천심사위원장이 민주당 후보의 지원 유세에 본격적으로 참여할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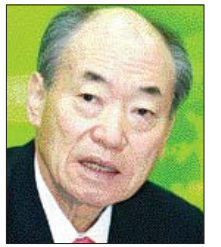
박재승 위원장이 27일 오후 7시30분 경기 군포시 지역구에 출마한 김부겸 의원의 지원 유세에 나섰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박경철 공심위 간사는 "김부겸 의원에 대해 박 위원장이 지원 유세에 나서는 것은 함께 공천심사위원회에서 활동했던 사람에 대한 인지상정 차원"이며 "현재까지 김 의원의 외 다른 후보들에 대한 지원 유세 일정은 잡혀 있지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박 위원장이 민주당의 회생을 위해 공천 심사 작업을 주도해왔으며 국민에게 특히 수도권 유권자들에게 인기가 높다는 측면에서 지원 유세 참여의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당 관계자도 "박 위원장이 정치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당에 대한 애정이 많았다"며 "공천에 대해 책임진다는 생각을 한다면 지원 유세를 본격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더욱이 민주당 수도권 출마자들이



중심으로 박 위원장에게 지원 유세를 부탁하는 후보자가 20여명 이상 되는 것으로 전해져 지원 유세

참여 가능성을 크게 하고 있다.

문제는 당 지도부에서 박 위원장에게 지원유세를 요청하느냐의 여부. 박 위원장과 가까운 공심위원들은 무작정 지원유세에 나설 경우 불필요한 정치적 오해를 받을 수 있어 주저하고 있지만 당 지도부에서 공식 요청이 올 경우 지원 유세에 나설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공천 과정에서 당 지도부와 갈등을 빚은 박 위원장에 대해 상당수의 지도부는 여전히 불만이 있는 상황이어서 유세 요청에 대해 부정적 시각이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때문에 현 상황에서 박 위원장의 지원 유세 참여 여부는 손학규·박상천 대표의 결단에 달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두 공동대표가 당의 총선 승리를 위해 자존심을 버리고 박 위원장에게 지원 유세를 부탁할 경우 박 위원장이 이를 수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박지을기자 jkpark@kwangju.co.kr

## 광주 북갑 한화갑 vs 강기정 벌써 '후끈'

#### 韓후보 지지 호소에 姜후보 즉각 반박 회견

"공천 혈전"을 뚫고 나온 강기정 후보나, 정치 인생을 걸고 '마지막 승부수'를 던진 한화갑 후보나."

한화갑 전 구 민주당 대표의 전격 출마로 한바탕 격전이 예상되는 광주 북갑 선거구에서는 통합민주당 강기정 후보와 무소속 한화갑 후보가 초반부터 치열한 기싸움을 벌였다.

한 후보는 이날 오전 광주 북구청을 방문, 송광동 구청장 등 주요 간부들과 가진 자리에서 '연고도 없는 광주에서 무리하게 출마했

다'는 여론을 의식한 듯 "광주에서 평가를 받아야 진짜 전라도 대표"라고 말했다.

그는 "박광대 시장과 여러 구청장들의 공천장을 써준 사람이 바로 나왔다. 그런데도 당이 달라지니 모두 외면하더라. 물론 현실이니 아무도 원망할 수는 없지만..."이라며 섭섭함을 표시하는 동시에 은근한 '압박'도 가했다.

한편 한 후보의 출마로 비상이 걸린 강기정 후보는 이날 오전 곧바로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 후보를 견제했다.

강 후보는 "한 후보가 순하규 대표를 겨냥해 '한나라당 사람'이라고 거분하고 공천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궤변"이라며 "한 대표는 입당 과정에서 공천을 맡겼으면 맡긴 것으로 끝내었어야 했고 그게 어른이고 정치 지도자로 배웠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 후보의 출마로 군사정권에 맞선 민주화투쟁의 상징이었던 '동교동'이라는 이름이 자칫 국민들에게 불명예스럽게 회자될까 우려스럽다"고 꼬집었다.

/김지을기자 dok2000@

## 무안·신안 '총성없는 전쟁' 막 올랐다

#### 김홍업 개소식에 김옥두 등 동교동계 총출동 황호순·이윤석 후보도 개소식...선거운동 돌입

김대중 전 대통령의 차남 김홍업 의원의 무소속 출마로 광주·전남 최대의 관심 선거구 중 하나로 떠오른 무안·신안지역 후보들은 선거운동 첫날인 27일부터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하거나 지역 곳곳을 누비며 힘찬 발걸음을 내디뎠다.

통합민주당 황호순 후보는 이날 이른 아침부터 무안을 관내 상가와 주택가 등을 돌며 정통 민주세력의 후보인 자신을 지지해달라고 호소했다.

황 후보는 또 28일 오전 11시 신안사무소, 오후 2시 무안사무소 개소식을 각각 갖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할 예정이다.

무소속 김홍업 후보는 이날 오전 목포여객터미널 앞에서 박지원(목포) 후보와 김옥두·윤철상 전 의원 등 동교동계 핵심 인사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신안연락사무소 개소식을 하고 세를 과시했다.

김 후보는 무안의 5일장이 열리는 오는 29일에는 무안 선거사무

소에서 조직 발대식을 겸한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바람몰이에 나설 계획이다.

애초 무안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맞춰 무안을 방문할 예정이었던 이희호 여사는 28일 3박4일 일정으로 무안을 방문, 김 후보의 지지를 호소할 것으로 전해졌다.

무소속 이윤석 후보는 이날 오전 7시50분 배를 이용해 흑산도에 들어가면서 선거운동 사상 처음으로 흑산도에 유세차량을 끌고 가 주민들로부터 환호를 받았다. 이 후보는 28일에는 무안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출정을 선언할 계획이다.

/박지을기자 jkpark@kwangju.co.kr

#### 개인 연설회 횡수 제한 없고, 유세차·확성기는 1대만

#### 선거 유세 어떻게

18대 총선 공식 선거전의 막이 오르면서 유권자들의 눈과 귀를 붙들며 매기 위한 각 후보들의 본격적인 유세전이 시작됐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유권자들이 접하게 되는 유세는 크게 3가지. 공개 장소에서의 연설-대담, TV연설, 인터넷과 전화 선거운동 등으로 요약된다.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개인

연설회)은 이른바 거리유세로, 전통적 형태의 선거운동이다. 선거운동 기간동안 개인연설회는 횡수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후보자가 부지런한 한 하나씩 수백, 수천번을 하더라도 상관없다.

도로·공원·광장·운동장·체육관 등 유권자가 있는 곳이면 언제 어디든지 찾아 자신을 홍보할 수 있다. 다만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의 제한되고 열차·시내버스·지하철 안,

터미널 안과 지하철역, 병원, 도서관, 의료연구소 등에서는 할 수 없다.

유세용 자동차와 확성장치는 각 1대만 사용할 수 있고, 휴대용 확성장치를 이용하는 경우 오전 6시부터 밤 11시까지 가능하며 유세차량이 정차한 장소 이외 지역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하다.

한때 우리 선거문화에서 익숙했던, 주로 학교운동장 같은데서 열리는 대규모 합동연설회는 지난 17대 총선때부터 금지돼 더 이상 유세현장에서 동원된 것으로 보이는 대규모 집중은 볼 수 없다. /김지을기자 dok2000@

정확한 혈당관리 - 이제 골드인지 확인하세요!

아큐 체크 퍼포마

2008년 신제품

이름-색 피도막 총사실 Easy 결과를 알려줘!

- 1.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결과를 알려줘! (10초)
- 2. 대용량 피도막 100개 포함! (100개)
- 3. 편의성! (100개)

1644-0119